



## 美, 穀物輸出規制 검토

미국정부는 밀을 비롯한 곡물류의 내수량을 비축하고 많은 식품가격을 엮어 내놓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이들 곡물에 대한 수출규제 여부를 검토중이며 앞으로 1주일 이내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최근 고위행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에드가·필더」 미재무성 경제정책담당차관보는 밀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 비추어 밀의

수출규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의 밀공급은 극도로 긴축될 것이라는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자리에서 곡물의 先物가격이 역사상 처음으로 부셸당 5\$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소비자용 빵 및 기타 곡류의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 어두운 世界食糧사정

미국산 소맥, 옥수수, 대두 수확예상고의 下向수정발표는 세계의 식량부족 가능성에 관해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72년부터 발표해오던 경고를 『유감스러운 일이나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A.H 보에르마」 FAO 사무총장은 말하고 있다.

세계의 식량비축량이 20년째 최저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오늘날 올해의 미국농산물 예상고가 기타 주요 농산국들과 같은 水準作아니면 그 이하일 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세계의 식량사정은 그만큼 더 암담해지지 않을 수 없다.

FAO는 따라서 식량비축량과 수출가능성 및 수입의 필요성등을 세계적인 규모로 파악, 조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보에르마 사무총장은 금년초에 이미 FAO 회원국 정부들에 보낸 공한 및 여러기회의 연설을 통해 세계 식량부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발표하면서 이 사정은 더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련의 비상계획을 수립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역설해 나왔던 것이다.

## 小麥에 輸出稅검토

EC委員會는 지난주 실시한 硬質 및 軟質小麥의 輸出許可證발행정지 조치를 취소하고 그 대신 輸出稅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이곳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수출세는 소맥뿐만 아니라 다른곡물, 특히 옥수수에도 부과될 전망이다 그 소식통은 전했다. 「부즈」美농무장관은 지난주달 EC농업담당위원으로 부터 가까운장래에 소맥의 禁輸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진바 있으며 따라서 이소식통의 말은 이를 立證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소식통은 輸出許可證給정지조치에서 輸出稅부과로의 轉換은 반드시 수출규제완화를 뜻하는것이 아니며 수출세가 어느정도의 稅率이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 필리핀 食糧難에 허덕여

3천8백만명의 필리핀 國民들은 현재 심각한 食糧難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全國의 대다수 미곡상점들은 食糧이 바닥나 이미 문을 닫은지 오래며 아직도 문을열고 있는 극소수의 쌀가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차례를 기다리는 가정주부들이 장사진을 치기 일쑤이다.

식량난이 가장 극심한 大마닐라地區의 몇 안남은 쌀가게 앞에는 연일 2백m나 되는 긴행렬의 주부들이 長蛇陣을 이루고 있다. 필리핀의 이와같은 食糧難은 작년에 필리핀을 강타한 史上유례 없는 洪水로 루손島의 6천ha를

포함 全國적으로 수많은 논들이 황폐한데다가 뒤이어 한발까지 겹쳐 食糧難을 더욱 부채질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食糧과동으로 外國으로부터 食糧輸入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태 그 주요원인이 있다.

政府는 食糧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태국과 파키스탄으로부터 각각 70만톤과 30만톤등 1백만톤의 쌀을 도입키로 했었다. 그러나 태국과 파키스탄도 한발등의 원인으로 인해 식량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어 태국이 1만 4천톤 그리고 파키스탄이 1만 6천톤씩 밖에 필리핀에 쌀을 수출하지 못했다.

프란시스코 타파드公報相이 태국과 파키스탄 자체의 식량사정 때문에 1백만톤 쌀 수입계획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불안한 상태에 있던 식량위기는 급기야 표면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마닐라의 市中쌀값은 1간타當 6.50페소(약 1\$)로서 불과 며칠 사이에 거의 倍로 폭등했으나 그나마 품귀상태를 빚고 있다

## 美大企業들 好景氣누려

통화불안과 정부의 인플레이 억제계획등 미국 의 경제환경은 여전히 곤란한 것이지만 大企業의 업적은 好調를 보여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금후는 경제활동의 鈍化에 더해져 經濟統制 제 4단계로 엄격한 이윤규제가 있을 것이어서 각 기업도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 지널紙가 정리한 美國의 대기업 6백1社의 제 2.4분기(4~6月)의 稅金負擔後이

익은 작년동기에 비해서 31.6%가 대폭증익 되었다.

이는 제 1.4반기의 증익을 27.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퍼스트 내셔널시티은행의 조사에서도 同期間의 稅負擔後 利益은 前年同期에 비해서 약 30%增으로 나타나 사상최고의 결산이 계속됐던 제 1.4반기의 증익을 27%를 더 상회하는 공전의 호 업적이 되었다.

특히 증이, 펄프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석유를 중심으로 제조업의 증익율이 높은 것이 눈에 뜨인다.

## 新種쇠고기 「비펠로」등장

쇠고기 파동으로 시달리고 있는 미국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반 肉牛보다도 훨씬 몸집이 크고 고기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新種牛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소의 이름은 「비펠로」라고하는데 牛肉이라는 뜻의 「비프」와 美國야생 들소인 「비펠로」의 合成語로서 일반 肉牛와 「비펠로」간에 생긴 혼혈선종우에 이름붙인 것이다.

美 「샌프랜시스코」 東部 80km지점에 있는 「드레시」의 목장에서선 5천마리의 「비펠로」들이 이번 가을부터 시장에 팔려가기 위해 부지런히 자라고 있다.

肉牛와 「비펠로」의 혼혈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인데 목장주 「버트 파소토」씨의 이번 新種牛개발은 과학적인 흥미이외에도 쇠고기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망을 가져와 미국의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목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비펠로」의 血統이 16분의 3정도 섞인 것으로 얼굴모양은 보통소와 크게 다를것이 없지만 몸집은 월등히 크다.

뿐만 아니라 「비펠로」는 풀만 먹고도 자랄 수 있는 특징을 지녔다.

보통소의 경우 곡물을 먹여 키우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훨씬 떨어지지만 「비펠로」는 草食이외에도 아무것이나 잘먹어치울뿐 아니라 약 천후나 질병에도 잘 견디면서 고기는 많다는 것이다.

## 小麥 9百萬 不足

국제소맥위원회는 최근 73~74년 추수 년도의 세계 주요 소맥 생산량이 3억2천1백만톤에 달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는 또 현 추수년도말의 이월 저장량이 2천3백만톤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 同秋收년도의 세계 밀 수출 수요가 6천6백만톤에 달하지만 수출가능량은 5천7백만톤에 불과하여 약 9백만톤의 수출공급부족 현상을 빚어내게 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국제소맥위원회는 이어 수출 소맥의 50%를 소비하는 개발도상국들은 작년도의 소맥값 앙등으로 필요량을 모두 구입할 돈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소맥 구입을 위한 단기 차관을 현재로서는 사용할수없다고 밝혔다.

이 委員會는 앞서 8백만톤의 수출 수요량 부족을 예측 했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다시 1백만톤이 증가 된것이다.